

# “암장수풍뎅이 왜 뿔이 없을까” 호기심 만발

### 세계곤충학습 체험전 3월18일까지 광주비엔날레 1전시관

### 25개국 1만5000여점 희귀 곤충·표본 전시

“장수풍뎅이 암컷은 왜 뿔이 없나요- 장수풍뎅이는 언제 날아다니나요.”

4일 광주비엔날레 제1전시관에서 열리고 있는 'EBS와 함께하는 세계곤충학습 체험전'.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등 곤충의 유충을 손바닥에 올려놓은 어린이들이 초롱한 눈망울을 글리며 도우미 언니에게 호기심 어린 질문을 가득 쏟아냈다.

이 행사가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곤충들을 만져보고 생태를 입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오감 체험형'이기 때문이다. 장수풍뎅이·사슴벌레관, 나비관, 수서곤충관, 곤충표본관, 영상관 등 15개 전시관이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구성돼 있다.

호주, 아르헨티나, 미국, 멕시코, 중국, 태국 등 세계 25개국 1만5천여점의 희귀 곤충과 표본이 전시되고 있다.

곤충표본전시관과 체험관은 초롱초롱한 어린이들의 눈길을 사로잡는다.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를 비롯 코끼리처럼 덩치가 큰 '코끼리장수풍뎅이', 뿔이 토끼 모양인 '토끼장수풍뎅이', 날개가 바이올린 형태를 띤 '바이올린 먼지벌레' 등 곤충 표본을 전

시하고 있다.

곤충체험관을 찾은 김진우(화정초교 2)군은 “책에서 봤던 자이언트블루 전갈과 보아뱀, 아르헨티나 왕도마뱀을 직접 만져보니 너무 신기하고 귀엽다”며 함박웃음을 터뜨렸다.

곤충체험관에서는 매 시간 물방개 수영대회가 열리고, 장수풍뎅이와 사슴벌레 씨름대회도 열린다.

수서곤충관은 환경오염으로 자취를 감추고 있는 물방개, 물뽕뎅이, 장구예비 물자라를 직접 잡아보고 곤충들의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자연학습장이다.

동물로 만들어진 나비관은 나비가 날아다니는 모습과 나비의 유충과 우화 등 진화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곳이다. 이 곳에서는 화려한 색색과 날개를 가진 수백 종의 나비들의 오색 향연이 펼쳐진다.

전시 중인 각종 곤충들의 서식형태와 유충, 성충기 등 성장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전문가들이 육안으로 곤충들의 생태를 들려주는 영상관도 마련돼 있다.



어린이들이 'EBS와 함께하는 세계곤충학습 체험전'에 전시되고 있는 희귀 곤충 표본을 호기심 어린 눈길로 둘러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밖에 '물부치(천연소재로 만든 수수깡)'로 곤충의 모양을 직접 만들어보는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홍하은(여·40·수천시 조례동)씨는 “희귀 곤충들을 직접 만져보고 생태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이 좋은 것 같다”며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했다. 행사는 오는 3월 18일까지 열리며, 입장료는 19세 이상 1만2천원, 19세 미만은 1만원. 문의 1588-0766.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주는 거장을 만나고 싶다

3년전 광주 시립미술관은 '얼굴이 화끈 거리는' 경험을 했다.

오지호 화백(1905~1982)의 탄생 100주기를 맞아 기획한 특별전을 위해 국립현대미술관에 소장중인 고인의 작품을 임대해달라는 제안을 했다가 거절 당한 것이다. 기본적인 환경은·합숙시설이 안된 전시장에는 작품을 빌려줄 수 없다는 게 이유였다. 체면 무릅쓰고 몇차례 더 부탁했지만 현대미술관의 마음을 돌리는데 실패해 결국 이 전시는 무산됐다.

현대미술관의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시립미술관은 또 한번 좌절을 겪었다. 2004년 8월 '렘브란트전' 광주순회전을 유치하기 위해 기획사측에 노크했다가 전시장 시설과 시장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딱지를 맞았다. 특히 렘브란트전 유체에 소요되는 수억대의 비용을 커버하려면 최소 관람객이 30만명이어야 하는데, 흥행을 확산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992년 개관 이래 10만명 이상 관람객을 동원한 전시회가 전무했기 때문이다.

그 때의 아픔이 너무 컸던 것일까? 이후론 광주 시립미술관에서 불복박스터급 전시를 보기가 힘들다. 겨울방학을 맞아 서울은 물론 전국 지방공립미술관들이 앞다투어 해외유명작가전을 유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경기도 미술관은 올 겨울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 '후안 미로전'을 개최해 대박을 터뜨렸으며 부산 시립미술관은 '인도 현대미술전'을 열어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하고 있다. 대전 시립미술관은 지난해 야수와 거장 '루오전'을 개최해 관람객 11만명을 동원했다.

대전과 경기도 미술관이 '지방'이라는 한계에 도전하고 불복박스터 전시를 유치할 수 있었던 것은 지자체의 지원과 미술관의 치밀한 마케팅 덕분이다. 두 지자체는 시민들의 문화향유를 위해 2억~3억원에 달하는 전시예산을 아낌없이 내놓았으며, 미술관은 전시의 내실을 위해 2년 전부터 전시준비를 해왔다.

그렇다면 광주 시립미술관은 어떤가. 지역작가들의 기획전으로 새해를 연 시립미술관은 다른 지역 공립미술관이 연일 수백명의 관람객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것과 달리, 찾는 관람객들이 적어 썰렁하다. 문제는 올 8월 최첨단 전시장 시설이 구비된 새 미술관으로 이전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해 전시예산 2억원으로는 수억원대의 비용이 들어가는 매머드 전시 유치는 '그림의 떡'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립미술관은 현재 개관초기 기념전으로 국내 유명작가전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도시의 주역은 다름 아닌 시민들이다. 예술적 소양을 갖춘 시민들이 가꾸어 가는 도시는 그 어떤 화려한 랜드마크나 정책보다 높은 문화적 품격을 보여준다. 시민들의 문화갈증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광주와 시립미술관의 전환적인 인식전환을 촉구한다. 언제까지 '동네미술관'으로 남아 있을 순 없지 않은가.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 '영화를 통해 배우는 미국' 광주 아메리칸 코너 영화축제



지난 2일 광주 무등도서관 내 아메리칸 코너에서 열린 '광주 아메리칸 코너 영화축제'에 참석한 주한미국대사관 존 최 지역총괄부담당원이 영화 소개를 하고 있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 2일 광주시 북구 우산동 무등도서관 내 아메리칸 코너에서 '만화를 통해 배우는 영어', '동·서양의 만남 그리고 노와르'를 주제로 '광주 아메리칸 코너 영화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주한미국대사관 최은경 전문위원이 교육용 비디오나 영어 동화책을 이용한 어린이 영어교육에 대해 강의했다. 또 주한미국대사관 존 최 지역총괄

부담당원은 '황야의 7인'과 '블러드 심플'을 상영한 뒤 30여명의 참가자들과 '동양과 서양의 만남: 통념과 진실', '현대적 노와르: 코엔형제 감독의 '블러드 심플'이 보여주는 영화적 전채성'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앞으로 매월 1~2회 영화 축제를 열 계획이다. 문의 062-251-4465

/글·사진=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 2월 11일 교황청 제정 '세계 병자의 날'

### 9~11일 서울 명동성당·장충체육관 등서 기념대회

교황청이 제정한 '세계 병자의 날'(2월11일) 서울대회가 9~11일 명동성당과 장충체육관 등에서 열린다.

'세계병자의 날'은 아픈 사람과 그들을 위해 일하는 기관과 수도회, 의사와 간호사 등을 위한 날로 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1992년 제정해 이듬해 프랑스 투르드에서 처음 열렸다. 올해 15회째로 이번 서울대회는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영성적 사목적 돌봄'을 주제로 진행된다.

서울대회에는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특사 자격으로 교황청 보건사목평의회 의장 하비에르 로사노 바라간

(74) 추기경이 참석한다.

행사는 9일 오전 9시 명동성당에서 정진석 추기경이 주례하는 개막미사를 시작으로 '아시아 지역 난치병 환자, 난민 그리고 고통받는 환자의 실태' 등 주제논문을 발표하는 학술세미나로 이어진다.

이어 10일 오후 7시30분 장충체육관에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세계 병자의 날' 행사가 열린다. 이 행사에는 가수 거북이, 마야, 바비킴, 배틀, 베이비복스 리브를 비롯해 하모니카 연주자 전제덕, 국악팀 나래, 비보이 댄서 등의 공연무대가 마련된다.

/연합뉴스

## 정지연 공예전 6일~12일 무등미술관

공예가 정지연씨가 고구려의 삼족오, 벽화 등 고대문양을 현대적인 시각으로 재해석한 공예전을 6일부터 12일까지 무등미술관에서 갖는다.

전남대대학원에서 고구려 문양을 응용한 조형기구를 연구하고 있는 정씨는 이 전시에서 고구려인들의 상징문양을 새겨 넣은 조명 공예 작품 37점을 선보인다.

'월광(月光)'은 삼족오 문양의 배경인 태양을 투각한 뒤 표면을 자개로 마무리한 작품으로 태양을 통해 비스하는 고구려인의 기상을 담고 있다.

전남대 미술학과를 졸업한 뒤 전국공예대전 특선, 대한민국 문화상품대전 동상을 수상했다. 문의 062-228-6624.

/윤영기자 penfoot@kwangju.co.kr



'월광(月光)'

<p><b>신입생 모집</b></p> <p>고등학교 입학준비반</p> <p>광주대신고등학교</p>	<p><b>주요신매매</b></p> <p>주요신매매</p> <p>011-644-3411</p>	<p><b>신입생 모집</b></p> <p>고등학교 입학준비반</p> <p>광주대신고등학교</p>	<p><b>레드옥스 창고형 대망줄</b></p> <p>상주최대 90~60% 이월</p> <p>TEL: 062-365-4450</p> <p>K.P. 011-357-1153</p>
<p><b>중고자동차 전차종 매입·판매</b></p> <p>매입·판매</p> <p>010-8427-9997 (유)홍길동 자동차 매매상사</p>	<p><b>베림질기</b></p> <p>1개 구매시 30,000원</p> <p>2개 구매시 60,000원</p> <p>문의: 010-9044-1124</p>		